

#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 국군, 장비 기본기 부족 등 도마위

캠뻬셔츠 착용 기본이해도 부족  
권총집 위에 소형낭 부착 논란  
올바른 장비 착용 미군과 대조적



육군이 지난달 31일 언론에 공개한 한미연합사단 연합 합동 화력운용훈련 사진. 권총집 바로 위(붉은 원)에 소형낭을 부착한 한국군 장교와 전술장갑부터 개인전투장비를 충실히 착용한 미군.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 기간에 맞춰 한미연합사단은 창설 이후 최초로 대규모 사단급 연합·합동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양국군의 화력 및 기동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된 훈련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국군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1일부로 사실상 종료되는 UFS연습에서 한미 양국군은 2018년 이후 분산·축소 실시돼 왔던 실기동훈련(FTX)을 13개 과제별로 나눠 재실시하는 등, FTX분야가 강화된 분위기였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대민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투경험 없는 국군의 전환기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육군이 보도자료로 내세운 사진을 보면 국군은 세계 최강 미군과

함께하기에는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육군이 전날 언론에 공개한 사진 중에는 영관급 장교가 미군과 함께 경기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쌍안경으

로 관측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대 지휘관으로 보여지는 이 장교는 미해병대가 채택한 통합형 신분표지장을 방탄복에 부착했고, 기능성피복인 캠뻬셔츠를 착용했다. 이를 본 현역군인들 일부와 군사

동호인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흡한속건(땀을 빨아들이고 빨리 마르는) 기능의 원단이 셔츠의 앞뒤판을 구성하고 있는 캠뻬셔츠 안에 별도의 셔츠를 끼입었다. 익명의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기능성 원단의 기능을 저해하는 복장착용은 맞지만, 일부 장병들은 캠뻬셔츠의 착용감에 익숙하지 못해 속에 다른 옷을 끼입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복과 장비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하다보니 피복의 기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지휘관의 사례 깊은 모범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육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실전경험을 두루 경험했던 한 교관은 "한국군의 권총집은 권총을 권총집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해주는 멈치의 작동방식에 문제가 있다보니, 비전술적 행동들이 많이 보였다"면서 "미국에서 동일 방식의 멈치를 사용한 권총집에서 오발사고가 많았기에 한국군은 권총에 탄을 약실에 장전해두지 않으며, 방탄복과 전투조끼의 부착위치도 규정으로 통제하

듯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대대 지휘관으로 보여지는 장교의 권총집 위에 소형파우치(낭)가 부착돼 있어 권총을 즉각적으로 뽑아 응사하기 힘든 형상이었다. 이 교관은 "한국군 지휘관들은 권총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면서 전술적 권총사격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2015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은 독일군과 프랑스군 5000여명이 혼성으로 구성된 독불여단처럼 한국 육군과 미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이다. 양국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독특한 구성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사단급 연합·합동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해 왔다. 사후강평을 제외하면 사실상 훈련 마지막 날인 이날 정도 포천 훈련장 상공 10m 미만으로 추정되는 고도에서 수리는 헬기 2대가 공중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 소상공인·中企 활력... '동행축제' 본격화

6000여 개 상품 특별할인 판매  
66개 온라인몰 최대 80% 세일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에 본격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선 동행축제 전야제가 열렸다. /김기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활로 모색을, 국민들에게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올해 동행축제에는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총 235개 유통채널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특별 판매한다.

우선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 171개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특별판매한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등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 66개에선 약 5000개 제품에 대해 최대 80%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세일을 진행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에도 120여개 제품이 참여한다.

해외쇼핑몰 7개와 공공쇼핑몰 59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13개 채널도 참여한다.

판매상품은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민간 유통사 등에서 상품의 우수성 및

상품성(할인율 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제품이 우수해도 판로기회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 제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에서는 '상생소비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상생소비복권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전국 곳곳의 오프라인 유통매장 64곳에서도 동행축제 특별판매전 등이 열린다. 전국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8곳, 아울렛 5곳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구

매고객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 10% 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추첨 이벤트가 열리며, 앞서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티켓을 제공한다. CGV에서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 구매고객에 영화 3000원 할인권과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공영홈쇼핑 동행축제 장애인기업특별전 오픈

공영홈쇼핑이 장애인기업과 특별한 동행을 시작한다.

공영홈쇼핑은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일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과 물에 장애인기업특별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중소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판로촉진 및 매출증대를 위해 사전에 모집해 선정한 것들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10개 기업, 32개 상품이 포함돼 있다.

▲떡배기 식품 경산대추된장 450g (1만1700원) ▲햇살 먹는 사과즙100포 (5만5710원) ▲스틸아트 건조대 (7만1250원) ▲그린테크롤 아이폰즈 칫솔(3만1500원) ▲두즈2 핸드프리 드라이기 (17만500원) 등이다. '동행축제' 기간 선보이는 장애인기업 상품들은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완전자율주행 기술 선점 위한 세미나 열려

산업부, 신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자동차연구원 등 150여 곳 참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완전자율주행단계인 '레벨4' 세계 첫 상용화 기술 선점을 위한 신기술 통합·연계, 국제표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일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과 경기도 양평군 블루비스타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통합·연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출연금 1조974억원을 투자해 레벨4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이 협업해 차량융합, ICT융합, 도로교통융합, 서비스 실증, 생태계 구축 등 5개 중점 분야, 88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세미나에는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서울대학교 등 15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테슬라를 과장광고로 고발한 사례를 들며,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연계를 위한 차량 융합 신기술 통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술로 자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OTA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표준연계 협의체는 초고속 OTA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등 국제표준 16건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중진공, 中企 ESG경영 우수혁신사례 발굴

6건 우수사례 선정 공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 민·관 협의회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2022년 ESG 경영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ESG 민·관 협의회는 ESG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발족한 협의체로,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ESG 우수혁신사례를 발굴·공유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저변을 넓히기 위해 추진했다.

공모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환경혁신(E) ▲사회혁신(S) ▲지배구조혁신(G) ▲ESG 선도사례 총 4개다.

공모 주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ESG 실천 사례' 또는 '공급망 실사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한 ESG 선도 사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이달 30일까지이며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등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